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경전부터 읽자

9월-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드자

불교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은 바로 경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부처님의 진리가 실려져 있는 경전은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본서이다. 이에 각 사찰을 비롯해 직장직능 단체 등 신행단체들은 '경전 공부반'을 만들어 지도법사를 두고 체계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 경전연구반에 다니는 김양숙 보살(48)은 "법문은 한 번 듣고 끝나기 때문에 들을 때는 배우는 게 많지만 막상 법문은

또 <잡아함경>을 읽은 후에는 읽기쉬운 경구나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부처님 당시의 원시불교를 느낄 수 있는 <수타니파타 경집>이나 <법구경> 등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어느정도 기초가 쌓인 중급 수준의 불자들에게는 초기 대승 불교경전인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십지경> 등을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불교방송에서 8년동안 '경전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금강선원장 해거스님은 "당장 읽기 편한 수필류의 가벼운 불서



▷라이코스 불교동호회 연꽃뫼 천불정사 회원들이 함께 경전 강독을 임을 갖고 있다.

초심자 잡아함경부터 시작 바람직

화엄경·육조단경 경전반이용 도움

을 나서면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경전공부는 예습과 복습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은 가르침을 반복해서 익히기 때문에 불교의 참맛을 체험할 수 있어 신심이 절로 생긴다"고 즐거워 한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의 경전은 그 수나 규모가 방대하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양의 경전 가운데 어느것 부터 먼저 읽어야 할까.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는 "초심자들은 부처님이 하신 설법을 이야기식으로 현실적인 예화를 들어가며 재미있게 서술해 놓은 <잡아함경>부터 읽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보다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는 경전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이 올바른 불교사상을 정립시켜 나가는 지름길이다"고 경전읽기 를 강조한다. 또 스님은 <화엄경>이나 <육조단경> 같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이해하기 힘든 경전들은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경전공부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책임기 좋은 계절이 왔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경전삼매에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 바로 이것이 신행 365일을 위한 첫 걸음이다.

김주일기자

신행 캘린더

9월 12일 (목)

■서울시 무용단 '우리춤 공연' = 서울시 무용단이 12일 13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우리춤 그 일곱 빛깔의 서정곡 변주' 공연을 한다.

한국 춤의 레퍼토리를 보여주는 이 공연은 부채춤, 승무, 바라, 살풀이 등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춤의 동적인 미와 정적인 미를 두루 살펴볼 기회. (022263-4680)

■정각사 '반야심경 특강'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지금 반야의 공(空) 사상을 접할 기회가 마련됐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방배동 정각사에

서 동국대 권기종 교수가 강의하는 반야심경 특강이 그것.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참가비도 무료. 명강의로 유명한 권 교수에게 직접 반야심경을 배울 수 있다. (02584-1983)

9월 13일 (금)

■양평 상원사 '산사음악회' =고요한 산사에 웬 음악소리? 양평 상원사에서는 가수 장사익, 한영애, 심진 스님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신도와 지역주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산사의 운치도 즐기고 음성 공양도 즐길 수 있는 자리. 오후 6시 30분. (031)773-4634

■월정사 '주말수련회'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

니까? 천년의 시간 동안 낮은 길을 지혜의 문으로 인도한 그 길... 조계종 포교원과 오대산 월정사가 함께 개최하는 주말 수련회 '천년의 기다림'이 15일까지 개최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 참가비는 1박2일 3만원, 2박3일 5만원. (033)332-6664

■동산불교대 '산스크리트어 강좌' =동산불교대에 서근본 경전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 차원에서 산스크리트어 강좌를 마련했다.

중앙승가대 최종남 교수의 강의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개설예정인 팔리어, 티베트어 강좌를 수강하는데 도움이 될 듯.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 (02732-1206)

9월 15일 (일)

■제9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 =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라는 취지로 시작된 장애우 나들이 행사가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아름다운 한걸음'이란 주제로 오전 9시 30분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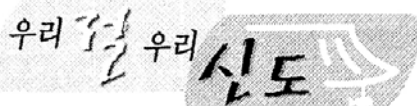
우리는 선우 주최로 열리는 행사는 장애우 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에 도움을 줄 장애우작도우미 100명과 차량도우미 50명(차량 50대를 기다린다. 장애우와 함께 하고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 (02)2278-8672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용진신행회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봉화 청량사를 찾는 사람

순례 여행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종이로 만든 지불(紙佛) 부처님을 모시고, 공민왕이 직접 쓴 '유리보전'이라는 행판이 있는 청량사를 찾아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 6시. 장소는 을지로 6가 국립병원 앞. 참가비는 2만5천원. (02)2279-1191

■맑고 향기롭게 일하시길 개살=재활용 의류, 도서류,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팔거나 사고 싶습니까? 오전 10시 성북동 길상사로 오시면 됩니다. 무공해 세제, 우리 먹을거리, 무공해 내지 저공해 환경상품 홍보 및 판매도 합니다. 이 글은 광고가 아닙니다. 수익금 전액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니까요. (02)741-4696

# “남 위해 봉사하는 일도 기도며 수행”



## 광주 증심사 장귀례 증심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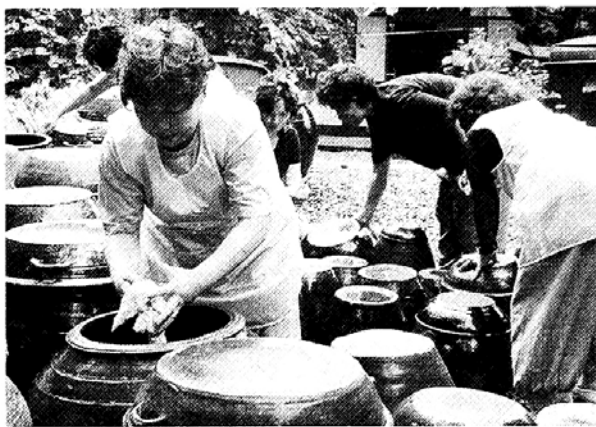
9월 1일, 관음재일. 법회가 끝나자 신도들이 공양간으로 밀려들었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평소보다 많은 4백여명의 신도들이 한꺼번에 물리면서 점심공양을 준비하던 보살들의 일손이 더욱 바빠졌다. 공양간의 보살들은 절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달려오는 증심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증심회) 회원들이다. 이들 중 만만치않은 장귀례 보살(59·법명 육호광)은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다.

법회가 있는 날, 장 보살은 증심사에 외도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새벽같이 절로 오지만 법회와 공양물, 점심공양을 준비하느라 정작 법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회와 점심공양을 마친 신도들이 돌아가고 난 뒤 뒷정리까지, 하루종일 늦게가 되도록 일을 하고서야 집에 돌아간다. 하지만 장보살은 물론 증심회 회원 누구도 불평한 마디 하지 않는다. "법회와 기도를 마친 불자들이 귀가하고 난 다음에야 법당에 모여 좌선과 기도를 하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곧 기도요 수행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씀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증심회는 제방선원 공양이나 불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후원하는 일이라 말로 재가불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하는 장 보살은 회원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 노력봉사는 물론 재물 보시까지 아끼지 않는 도반들을 보고 저들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회원들이 있어서 그 많은 절일을 다 해낼 수 있거든요. 물으로 도움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활동을 보고 말없이 후원해주는 불자들도 큰 힘이

## 50여년 신도...쉼넷 때 불교대학 수학 사찰음식의 불교적 맛·의미 알리고파

됩니다." 장 보살은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란 경구를 좋아한다. 처음 절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가 보여준 정성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늘 되새긴다. 언제나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증심사를 참배하곤 했던 할머니는 공양 올릴 쌀을 머리에 이고 오다가 힘들어 잠시 쉴 때에도 쌀



▷광주 증심사 장귀례 회장(왼쪽)이 회원들과 함께 공양간 뒤 정독을 하고 있다.

을 절대로 땅바닥에 내려놓는 법이 없었다.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물을 바닥에 놓으면 정성이 부족하니 힘들더라도 무릎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할머니의 가르침

을 오려 이 별명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말한다. 부담 없이 부르는 덕택에 낮은 불자들에게도 쉽게 전해질 수 있고, 증심사의 분사인 송광사 스님들도 특이한 별명 때문에 장 보살을 잘 기억해 주기 때문이다.

장 보살은 스네 살 되던 97년 광주 불교문화대학에 입학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교리와 경전에 대해 잘 모르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은 2년과정의 불교대학원에서 경전공부에 열심이다.

장 보살은 여유가 된다면 사찰음식전문점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사찰음식에 갖는 불교적 의미와 참맛을 알리고 싶다는 원을 갖고 있다. 공양간에서 배운 음식문화도 활용할 겸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와 사찰문화를 알리는 포교사가 되고 싶은 것이 소

### 추천의 말

일철스님 증심사 주지

어렸을 적 할머니를 따라 증심사에 다니기 시작한 장귀례 보살은 50여년동안 이곳을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오랜 세월 닦았으니 아반심도 생길만 한데 언제나 겸손하고 늘 한결같습니다.



법회가 있는 날이나 절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공양간에서, 법당에서, 혹은 마당에서 일하는 장 보살의 모습은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지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 든일에 솔선수범하며 묵은 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은 장 보살이 억척스럽다고들 합니다. 부러움과 칭찬의 표현이죠. 장 보살의 억척스러움에는 증심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증심회'라는 후원모임의 회장을 맡아 신도들 뒷바라지까지 애쓰고 있는 장 보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망이다. "이제는 절일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불자들도 절을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한다면 더 값진 신행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주=박용영 기자

###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남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기승을 저미는 애뜻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능인 스님 씀

국판/230쪽/7,500원

태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짙막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종파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오로 삼아 호지한다면 호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한자 이야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원문 문법과 해설! 알기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